

이책 저책

정후스님 소설 '열반제'

정후 스님이 삶과 구도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 소설 '열반제'(우리)를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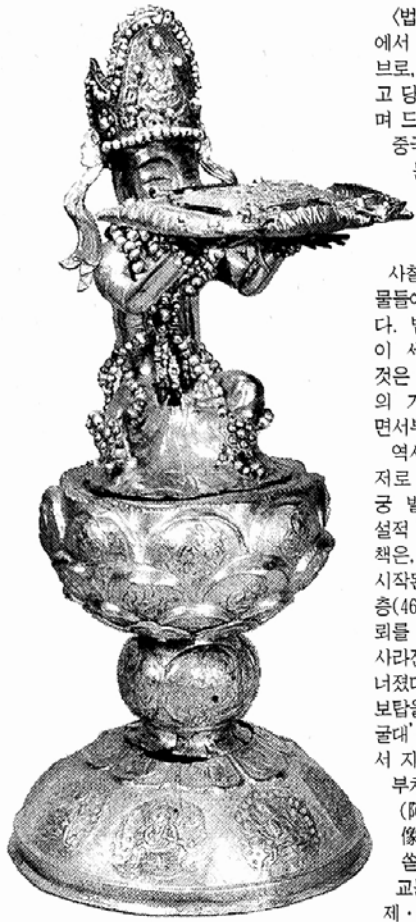
'정후 전집' 다섯 번째 권인 이 소설은 한 이름 없는 노승 해광 스님의 다비식을 찾아가는 세 인물, 즉 나레이터인 석엽과 해광 스님의 속세 딸 지영, 그리고 해광 스님의 꽃겨울 제자 지성의 만남으로부터 비롯된다. 특히 이제 막 수행길에 들어서려는 '나', 즉 석엽 스님과 파계승에 가까운 지성의 운명적인 부딪침이 예사롭지 않음을 암시한다.

이 소설은 참다운 삶이란 무엇이며 또 어떠한가 하는 문제에서 출발, 진정한 구도란 무엇이며 그 궁극적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를 끈질기게 천착하고 있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마침내 드러난 지하공의 보물들

웨난·상청용 '법문사의 비밀'



◇진주의 영력으로 물전체를 장식하고 있는 봉진신보살상.

《법문사의 비밀》(일빛)은 법문사 지하공에서 발굴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티브로, 중국의 불교 수용과 발전과정 그리고 당나라의 역사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드라마틱하게 펼쳐진다.

중국 산서성 서안의 당나라 황실사찰 법문사(法門寺), 중국의 사할 가운데 전 기적(傳奇的) 색채가 가장 두드러지는 사찰이다. 특히 희곡 '법문사'를 통해 중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졌지만 사할 지하공에 매장된 수많은 국보급 보물들에 대해서는 아는 이들이 거의 없었다. 법문사 지하공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 87년 탐의 기반을 정리하면서부터이다.

역사적 사실을 기저로 법문사 지하공 발굴과정을 소설적 형식으로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는 이 책은, 법문사 진신보살 불괴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 1981년 8월 24일 오전 10시, 13층(46m) 팔각 석가모니 진신사리탑이 낙뢰를 맞아 면도날로 잘라 놓은 듯 절반이 사라진다. 그리고 5년 후 나머지 반도 무너졌다. 이를 계기로 산서성 정부는 진신보살을 복원하기 위해 '법문사 고고학 발굴'을 구성, 발굴을 시작한다. 그 과정에 서 지하공이 발견되고 천년동안 묻혀 있던 부처님 진신사리 4과를 비롯 아유왕탑(阿育王塔), 봉진신보살상(捧眞身菩薩像) 등 2천9백 여점의 진귀한 보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유물들은 대부분 불교문화 연구는 물론 당나라의 정치·경제·문화·예술 그리고 해외 문화교류에 대한 연구의 깊이를 더해주는 자료들이다. 또 이 책은 발굴현장 이야기를 넘어 지난

역사 이야기를 덧붙여 불교와 중국역사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준다. 부처님 진신사리의 경우, 포교를 위해 석가모니 진신사리 8만4천개를 여러 나라에 봉안했다는 사실, 진신황 때 석리왕 등 서역의 불자들이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담은 보석함을 들고 중국에 들어오다가 추방당하는 이야기, 8명의 황제가 7차례 법문사에 불사리를 봉안했다는 사실 등 부처님 진신사리가 중국에 들어오는 과정과 중국의 불사리 신앙을 밝히고 있다.

지하공 못지 않게 주목할 것은 발굴 이야기를 통해 중국의 불교문화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법문사에서 미뤄져 있던 황제 측근후후와 그의 치마를 만날 수 있고, 궁정용 다구(茶具)를 통해 중국인의 고대 차문화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30여 일간의 발굴과정을 통해 법문사의 비밀이 하나씩 밝혀진다.

글쓴이는 '진신황 병마경'의 발굴 과정을 담은 <진신황릉> 등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웨난과, 잡지사 기자이며 여러 문학상을 수상한 상청용. 이들의 불교적 소양과 사화에 대한 조예, 그리고 예리한 관찰력과 기발함은 이 책의 가치를 높여준다. 특히 법문사가 웅성할 수 있었던 역사적 토대, 한유의 '불굴에 대해 간하는 표'에 대한 평가, 법문사 문화의 개념과 의의에 대한 이야기 등은 전문가들조차 귀를 기울이게 한다. 또한 불교 문화의 측면에서 글쓴이들은 법문사의 이름 내력, 당대 불사리의 공양과 법문사, 법문사와 밀교와의 관계 등에 대한 새로운 평가도 내리고 있다. 법문사 지하공이 발견된 뒤 10여 년 동안 발표된 작품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탁월한 고고학 발굴기로 평가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값 2만1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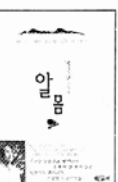
▲불조삼경지남(정한 스님 역주, 운주사)= <불조삼경(佛祖三經)>은 불문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나, 승가에 귀의하는 수행자들이 꼭 읽어보아야 할 경전. 중국에서는 선원에 처음 들어오는 수행자들은 꼭 이 세 경전을 배워야만 입발을 허락할 정도로 중요한 경전이다. 수행자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와 또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여 주고 있는 이 책에는, <사십이장경>을 비롯 <불유교경> <위산대원선사경책>의 원문과 해설이 실려있다. 값 8천원.

▲알몸(설산 스님 지음, 정여와 배베)= 18년 동안 300여 명의 영혼 결혼식을 올려 준 이야기를 담은 설산 스님(21세기 한국사회복지사회 이사장)의 수필집. 수많은 남녀 영혼들을 맺어주는 영혼 결혼식에 얽힌 사연들을 담은 영혼결혼식을 비롯 슬픔을 다스리는 방법, 인연을 소중히 하라 등 모두 5장으로 구성됐다. 값 7천8백원.

▲세상에서 부는 바람(정승 스님 지음, 도솔에이전서)= 일상 속의 불법을 수행자의 시각으로 담은 수필집. 세상에서 부는 바람, 속리산은 아름다워라, 미륵부처님 이야기, 무심의 미학 등 모두 8부로 이루어진 이 책은, 주위의 모든 것을 예사롭게 보아 넘기지 않고 그 속에 깃든 참 의미를 깨내는 글쓴이의 따뜻한 마음이 빛난다. 특히 미륵심신화 운동에 대한 글들은 신행에 활력을 갖게 한다. 값 8천원.

▲기를 타고 온 노재(정준 지음, 아세아문화사)= 노장사상에서 기원한 '학춤기공'이 우수한 예방 의화적인 기능을 가진 심신수련법이란 사실과 정서안정과 창의력 개발에도 크게 기여하는 호흡명상법이란 사실을 알려준다. 그리고 평소 건강에 무심경하다 몸이 이상 생겨야 병원을 찾은 우리들의 잘못된 의식을 바꾸고 예방의학을 실천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값 7천5백원.

▲해설이 있는 우리말 법요집(김호성 편저, 민족사)= <한글불교의식집> 중보판. 김호성(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가 92년부터 97년까지 백화도량 문수 경엄을 토대로 엮은 이 책에는, 오분향례를 비롯 예불, 발원, 불공, 참회, 좌선, 문상 등 여러 의식이 총망라돼 있다. 수계와 포살, 문상 의식, '좌선의 정', '화두는 법', '계초심학입문' 등은 새롭게 추가된 것. 재가불자들의 입문·법회·수련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 값 8천5백원.



마하르쉬 회상록 '추억의...'

아루나찰라의 진인(眞人) 라마나 마라르쉬 관련 서적들을 전문 출판하는 도서출판 탐구사에서 아루나찰라 총서시리즈 네 번째 권 '추억의 마라르쉬'를 내놓았다.

라마나 마하르쉬(1879~1950)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기 탐구법으로 유명한 남인도의 힌두 성자. 이 책은 1930년대에 그를 찾아가 제자가 된 발라라마레다가 마하르쉬와 함께 수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을 모은 회상록으로, 스승의 가르침과 일상 생활, 그리고 제자들을 이끄는 모습 등이 잘 드러나 있다. 특히 마하르쉬의 병환과 입적 과정이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다. 값 6천원. 김중근 기자



최봉수 교수 '불교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기준을 삼고 실천해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불교란 무엇인가>(부디스트랩)가 나왔다.

1편 '불교의 특징'과 2편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의 가르침'에서는 근본불교 전체의 흐름과 사상을 구체적인 경전자료와 함께 부처님 가르침에 접근하고 있다. 또 3편 '인간과 세계 진리와 수행' 그리고 신앙'과 4편 '불교윤리와 생활'을 통해서는 불교인의 신앙과 윤리적인 생활에 관련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피고 있다. 값 1만8천원. 김중근 기자



싯다르타 고행길 모험적 동행

파트리치아 켄디 장편소설 '싯다르타'



이탈리아 20대 여성 종교학자 파트리치아 켄디의 첫 장편소설 <싯다르타>(민음사)가 우리말로 출간됐다.

싯다르타의 삶과 고행 그리고 깨달음을 그린 이 소설은,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를 침묵에 빠뜨렸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유럽 전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화제작.

이 소설은 모두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권 <머나먼 갠지즈>는 싯다르타의 출생부터 출가까지의 과정, 즉 아버지 슈도다나 왕의 궁전에서 보낸 행복한 어린 시절과 아내인 야소다라와의 사

랑, 아들의 탄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기까지의 고뇌를 다루고 있다. 2권 <네가지 진리>에는 깨달음을 향한 고행의 과정에서 겪는 투쟁, 전생의 연인이었던 나라야니와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마침내 진리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붓다의 이야기가 들어 있다. 마지막 3권 <붓다의 미소>는 깨달음을 얻은 싯다르타가 고행인 샤카 왕국으로 돌아와 가르침을 전하는 이야기이다.

싯다르타의 생애를 중심으로 적고 있지만, 전기소설은 아니다. 글쓴이는 경전에 기록된 싯

다르타의 삶을 고증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헤르만 헤세가 싯다르타의 삶에서 명상적이고 초월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졌다면, 파트리치아 켄디는 고대 싯다르타 일대기에서 동화적이고 모험적이 요소들을

풀어냈다고 할 수 있다. 힌두교의 3대 신인 브라흐만, 시바, 비슈누를 비롯 알라라 칼라마, 아시타 등 고대의 경전에 등장하는 선인들의 지혜로운 잠언과 '마하바라타' 등 인도의 고대 서사시 그리고 꿈속에서나 볼 수 있을 듯한 인물들의 도리에 어긋난 행동들이 어우러져 싯다르타의 고행길을 동행한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싯다르타의 생애와 고대 신화의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소설의 빛나는 성취는 중국의 깨달음 즉 진리를 찾아가는 싯다르타의 모습을 재미있게 읽게 한다는 점이다. 고행과 번뇌를 떨치고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수행하는 싯다르타의 의식을 따라가며 글쓴이가 풀어놓는 이야기들은 인간에게 필요한 진리란 무엇인가를 명상하게 한다.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셀서 10

책방 역사이론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선방일기	지 허	여시인문
2	전생가기 할 읽다	설기문	도솔
3	만행-하버드에서 화제사까지	현 각	열림원
4	삼천사월요법	박 남 희	정신세계사
5	영가천도	우 용	효림
6	라마나 마하르쉬와 진아	대 성	탐구사
7	지대방 이야기	송광서 강원	법공양
8	아난존자의 일기	원나사리	운주사
9	달리 라마, 삼의 내가지 진리	주 민 환	숨
10	오두막 편지	법 정 이 레	

도서 안내:(02)737-0695

설기문 저 / 값 8,500원

전국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설기문 교수가 안내하면 혼자서도

전생가기 참 쉽다

국내 최초의 전생 매뉴얼북

- 전생 유도 테이프에 의한 최면으로 가장 편하고 가장 빠른 방법. 45분짜리 테이프를 한 번 또는 두 번 듣기만 하면.....
- 펜들럼 · 점막대 · 손가락 · 거울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마술과도 같지만 분명한 사실, 거울 속의 내가 어떻게 이룰 수가.....
- 꿈과 상상을 통해서 내가 말을 건네면 꿈은 반드시 응답한다.
- 현재의 나와 내 주변을 살펴보면서 지금의 나는 전생의 가장 완벽한 증거. 주의 깊게 주위를 다시 보면.....

설기문 동아대 교수 · 미국 공인 최면 전생 치료사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미국 인터내셔널 대학교 상담심리학 박사,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 객원 교수 역임, KBS TV <미스터리 추측>을 포함한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

* 전생 유도 테이프에 보호령이 설치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 것의 모두가 아니다

이 책은 이제껏 내가 읽었던 책들 중 단연코 최고였다

리처드 바크, <갈매기의 꿈>의 저자

Seth Speaks

육체가 없지만 나는 이 책을 쓴다

제인 로버츠 서민수 옮김 값 8,500원

● 전생을 알고 나면 → ● 몸과 마음, 대인 관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풀린다. ● 세상이 전과 다르게 보인다.

02) 738-0931